

에스겔의 표징

핵심 구절: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할 것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24:24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24:15-27

에스겔의 표징은 가슴 아프게도 심오하다. 주님께서 "네 눈의 소원"이라 묘사하신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었다. "한 번에" 죽을 것이다. 상실감과 슬픔을 더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이다. "너는 애도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지니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말며, 네 머리에 터번을 묶고 네 발에 신발을 신으라.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슬픔의 빵을 먹지 말라.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며,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명받은 대로 행하였노라." 에스겔 24:16-18

에스겔이 이 무거운 명령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욥이 표현한 그런 믿음,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는 믿음이다. 욥기 13:15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개인적 비극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교훈으로 바꾸시는 데 신적 지혜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요? 둘 다 "네 눈의 소원"으로 지칭되는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것이 그의

아내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국가 체제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행동에 분명히 호기심을 가졌다. 그가 아내를 애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고,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종종 신성한 의도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물었다. 백성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24:19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리라. 너희가 안전과 자랑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그곳을 말이다. 너희가 유다에 남겨 둔 너희 아들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할 것이다. 너희는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친구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위로받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는 가리운 채로 있을 것이며, 신발도 벗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애도하거나 울지도 않을 것이나, 너희 죄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서로 신음할 것이다.” 20-23절

성전은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해체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표징’이었다. 재앙은 일어났고, 아무리 애도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양심은 슬픔에 사로잡혀 시편 137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를 낳았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우리는 수양나무 가지에 하프를 걸어 두었노라.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음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강요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라!’ 그러나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하프를 치는 법을 잊게 하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소서." (시편 137:1-6). 에스겔의 표징에서 가슴 아픈 감정이 솟아난다.